# 5·18 미국에 처음 알린 빌링스 선교사 별세

5·18민주화운동을 가장 먼저 미국에 알 리고고(故) 윤한봉 열사의 도피를 도왔던 페기 빌링스(여·Peggy Billings·사진) 선교사가 지난 19일(현지시각) 미국 뉴욕 에서 별세했다. 향년 90세.

지난 31일 5·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빌 링스 선교사는 감리교 목사 신분으로 6.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한국으로 와 태화 사회복지관장을 맡아 야학을 열고 여성 직 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등 20여 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와 여성, 인권운동에 앞장섰다.

'변영숙'이라는 한국 이름을 받은 빌링 스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5·18 등 한국 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에 대해 지 속적인 관심을 보였다. 1975년부터 1990 년까지 북미한국인권문제연합회장을 역임 하며 미국과 캐나다에 한국 현안을 꾸준히 알렸다.

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

20년 한국 복지·인권운동 헌신 5·18 수배 윤한봉 도피 도와

DJ·이희호 여사와 오랜 교류

진압작전과 광주시민 희생 소식을 들은 빌 링스 선교사는 이틀 후인 5월 29일 뉴욕 맨 하탄의 리버사이드교회에서 광주 희생자 추모예배를 열었다. 북미한국인권연합이 주최한 이 예배는 추모형식으로 치러졌지 만 사실상 미국사회에 광주 학살을 알린 첫 5·18 진상보고회였다. 빌링스 선교사는 광주시민 희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.

1981년에는 5·18 마지막 수배자였던 윤 한봉 선생의 미국 도피 생활을 후원했다. 윤 선생은 5·18 핵심 주동 인물로 몰려 내 란음모죄로 전국 지명 수배를 받자 1981년



선 레오파드호 에 숨어 미국으 로 밀항했다. 빌링스 선교사 가 이끌던 북미 한미인권연합 은 윤 선생에게 거처를 제공하

4월까지 화물

는 등 미국 도피생활을 도왔다. 윤 선생 은 미국에서 민족학교와 재미한국청년 연합 등을 결성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을 지원하다 1993년 수배가 해제되자 귀 국할 수 있었다.

빌링스 선교사는 고(故) 김대중 전 대통 령, 이희호 여사와도 자주 교류하며 한국 여성·민주화운동, 통일에 대한 의견을 나 눈 것으로 알려졌다. 이 여사가 생전 여성 운동에 주력한 배경에도 빌링스 선교사의

영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.

지난 2011년 태화사회복지관 창립 90주 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빌링스 선교사 는 "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다. 한국인이 정말 자랑스럽다"고 말하며 여전한 한국 사랑을 나타냈다.

또한 그는 "나도 미국인으로서 직접 워 싱턴을 찾아가 인종 차별·베트남전에 대 해 저항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"면서 "그래야만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알게 된다"고 밝혔다.

이기봉 5·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"언론 을 통해 빌링스 선교사의 별세 소식을 뒤 늦게 듣고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안타까워 하는 분위기"라며 "광주와 한국에 사랑과 지지를 보냈던 빌링스 선교사에게 깊은 애 도를 표한다"고 말했다.

/김용희 기자 kimyh@kwangju.co.kr

### 문찬석 광주지검장 취임…"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처"

문찬석(58·사법연수원 24기) 신임 광주 지검장은 지난 31일 광주지검 9층 대회의 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"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법인 헌법에 규 정된 가치를 위협하고 훼손하려는 그 어떠 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"

문 지검장은 다만 "법에 정해진 절차라 는 이유로 수사의 목적성만을 중시 여기 고,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 도하게 희생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 서는 안된다"고 강조했다.

문 지검장은 "검사가 유죄확신이 없음에 도 유죄를 추정하고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에 기댄 폭력과 다름 없는 것"이라며 "공판 과정에 기소 판단의 오류가 발견됐다면 신 속하게 오류를 시정하고 국민을 법적 불안 정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"고

문 지검장은 또 "광주 검찰은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, 지역민에게 형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 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"며 "특히 부정부패 행위를 비롯한 여성과 아동 등 사



문찬석 제63대 광주지검장이 지난 31일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 다. 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엄 정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"고 덧붙였다.

한편 문 지검장은 영광 출신으로 성균관 대를 졸업했으며, 1995년 서울지검 의정 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특수부장,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, 광주 지검 해남·순천지청장,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다. /박진표 기자 lucky@

## 전남교육청 7일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

전남도교육청은 오는 7일 '제2회 초·중·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'를 실시한다.

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43명, 중졸 124명, 고졸 659명 등 총 826명이 응시한 다. 고사장은 목포애향중학교, 순천승평중 학교, 목포교도소 등 3곳이다.

장애인이 응시한 고사실은 대독·대필, 시 험 진행 안내 등이 제공된다. 응시자는 시 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고,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, 중·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가져가야 한다.

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원서접수 시 부착

20분까지 고사장에 설치된 고사관리본부 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.

시험 중 휴대전화 등을 소지할 경우 사용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주의 가 필요하다. 합격자는 오는 27일 도교육 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, 합격증서는 등기로 발송한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#### 광주지검 차장 전성원 인권감독관에 윤대영 검찰 중간간부 638명 인사

법무부는 지난 31일 백순현 대전고검 검사를 광주고검 검사로, 전성원 부산동 부지청 차장을 광주지검 차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638명 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 〈인사명단 22면〉

광주지검 인권감독관에는 윤대영 통 영지청 형사1부장이, 중요경제범죄조사 단장에는 박철완 서울고검 검사가 배치

또 광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정훈 서울 중앙지검 공판1부장, 형사2부장은 신은선 서울동부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,형사 3부장은 김훈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, 여 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유상민서울동부지 검 부부장, 공안부장은 최재봉 서울중앙지 검 부부장, 특수부장은 최임열 인천지검 부부장, 강력부장은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, 공판부장은 채수양 의정부지검 부 부장 등으로 꾸려진다.

한편 나병훈 광주지검 인권담당관은 수 원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고, 박철웅 광 주지검 형사1부장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에, 손준성 형사2부장은 원주지청장에, 신 승희 형사3부장은 대검 감찰1과장에 보임 됐다. 또 전현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, 이희 동 공안부장은 대검공안 2과장에, 허정 특 수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, 김 호삼 강력부장은 인천지검 강력부장 등에 이름을 올렸다.

/박진표 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#### 남구, 노후 시설 하우스 현대화 지원자 모집

9일까지 신청서 접수

광주시 남구는 "시설 하우스의 자동화 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,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시설 하우스 보완사업을 추진한 다"고 지난 31일 밝혔다.

사업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남구에서 2000㎡ 이상 시설 하우스 를 운영하는 농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에

서 지정한 내재해형 기준(직경 31.8mm 이상 측면 파이프 사용)에 따른 규격 하 우스이다. 다만 지난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최근 5년간 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으로 500만원 이상 수령한 농가나 부적 합 농산물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 에 제외된다. 신청서 접수는 오는 9일 까지이며 하우스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 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.

/김용희 기자 kimyh@kwangju.co.kr

####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7개 성인문화 강좌 개설

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8월 20 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반기 성인문화 강좌를 운영한다.

개설 강좌는 ▲영어기초회화교실 ▲ 서예교실 ▲한글교실 ▲요가교실 ▲캘 리그라피 ▲드론입문 과정 ▲동양고전 인문학교실 등 7개다. 동양고전 인문학 교실은 낮 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들을 위해 야간에 진행되며 수강료도 무

권래용관장은 "지역주민들에게 성인

문해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여가 선용 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반기 강좌를 마련했다"며 "문화예술, 인문교양, 성인 문자해득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평생학 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"고 말

성인문화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(lib. gen.go.kr/)를 참조하면 된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

당사에서는 개발행위(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)를 무료로 해드립니다.(※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)



**▶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(주)** 

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

전국대표 1544-1926 담 전 010-7614-1055 010–2845–4754